

중국의 서구경제학 수용에 관한 연구*

민성기**

목 차

- I. 머리말
- II. 1860-1949년 시기의 서구경제학 도입
- III. 1978년 이후 중국의 서구경제학 도입과 적용
- IV. 개혁경제학의 성립과 발전
- V. 맺음말

한글초록

근현대사에 있어서 중국은 두 번의 중요한 대외개방기를 경험하게 된다. 첫 번째 개방기가 2차 아편전쟁 이후부터 신중국 성립까지(1860년-1949년)라면 두 번째 개방기는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이후 부터라고 볼 수 있다. 아편전쟁 이후부터 신중국 성립까지 역사적 상황(내전과 항일전쟁) 때문에 서구경제학의 이론이 중국내에서 충분히 연구되고 정책화되지 못한 반면, 개혁개방이후 서구경제학은 중국적 맥락에서 ‘개혁경제학’의 이론적 토대가 되었다. 지금까지 중국경제가 성장과 시장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바, 이와 관련된 제도개혁과 협조개혁과의 이론이 경제정책의 중심을 이루었다면 향후에는 안정 성장과 개체 개혁과 관련된 경제이

* 본 논문은 2010년 4월 현대중국학회 · 중국인문사회연구소가 공동주최한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전환기 중국의 서구경제학 도입과정’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대구대학교 중국어중국학과

론들이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제어

서구경제학, 중국적 맥락, 개혁경제학, 대외개방기

I. 머리말

중국 경제학계 내의 ‘서구경제학(서방경제학, 西方经济学)’은 서구 선진국(일본포함) 자본주의 국가들의 시장경제체제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경제학으로 정의할 수 있다.¹⁾ 다른 개발도상국에서 좀처럼 사용하지 않는 ‘서구경제학’이란 용어의 사용은 서구의 선진국의 경제학을 받아들여 부국을 이루어야 한다는 중국 경제학계의 강박과 동시에 중국은 서구선진국과는 구분되는 중국의 경제체제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서구 경제학으로 완전히 설명할 수는 없다는 자기인식에 근거하고 있다(刘国光, 1992; 张曙光, 2007; 张卓元, 2009). 개혁개방 이후 시장경제도입은 이른바 서구경제학(서방경제학)의 전면적인 도입과 수용으로 이어졌다. 이는 신중국 성립이후 자본주의 체제 비판을 위한 서구경제학의 연구와는 다른 시장시스템의 확립과 이를 통한 경제 성장을 추구하고자 했던 시대적 요청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林毅

1) 서구경제학은 자본주의 국가들의 시장경제체제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경제학으로 정의할 수 있다. 서구경제학 자체가 경제학의 이론분과는 아니며 중국 내에서 서구 학설계에서 연구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와 관련된 경제학 마르크스 경제학으로 따로 구분된다. 吴易风, 『现代西方经济学与中国经济发展』(中国经济出版社, 2009).; Trescott, Paul B, Jingji Xue, *The history of the introduction of western economic ideas into China, 1850-1950*(Chinese University Press, 2007).

夫, 蔡昉, 李周, 1994). 하지만 서구 경제학도입을 통한 부국강병, 부국유민의 시도는 개혁개방시기 이후에만 국한되는 현상은 아니다. 서구경제학은 1850년 아편전쟁으로 중국이 강제적으로 서구세계에 문호를 개방한 시점부터 신중국 성립 이전까지 중국 근대 경제학의 중요한 이론적 토대가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서구경제학을 받아들였던 중국의 중요 정치, 경제사상가, 경제학자들을 강제적 개방시기(1850년부터 1949년)와 자발적 개혁개방(1978년) 이후로 구분하여 소개한 후 그들의 주요 경제학적 관심사와 이론적 배경을 설명하고 그것이 중국 경제학의 변화발전이라는 맥락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였는지 설명하려고 한다. 더불어, 본 연구는 중국의 경제정책의 수립과 집행과정에서 서구경제학의 중국적 적용 과정을 살펴보려 한다.

II. 1860-1949년 시기의 서구경제학 도입

중국은 아편전쟁 이후 서구의 사상과 학문을 빠른 속도로 받아들였고 그 속도는 1890년 이후 급속도로 더욱 빨라졌다. 중국의 계몽사상가인 웨이위안(魏源), 왕타오(王韜) 등은 서구 열강들의 경제의 특징을 언급하면서 국가적 상업망과 운송망(철도)을 강조하였다. 반면 쉘푸청(薛福成)과 천쭈(陳虬) 등은 경제개발에서 민간기업의 역할에 주목하면서 민간기업의 육성을 주장하였다. 이후 얀푸(嚴復), 캉유웨이(康有為), 리양치차오(梁啟超), 쑨원(孫文) 등 근대 정치사상가들은 서구 경제학을 적극적으로 학습하고 혹은 이를 중국적 맥락에서 해석하고자 하였다.

서구의 경제사상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얀푸와 리양치차오 등은 아담 스미스(Adam Smith)의 자유시장원리(자유경쟁과 사적이익추구)

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자유시장원리가 궁극적으로 중국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하였다. 반면 쑨원은 자유시장원리에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보다 중앙집중적이고 집체주의적 경제정책을 추구하였다.

한편 1900년 이후에는, 서구에서 경제학을 배운 많은 유학생들이 대거 귀국하여 서구경제학의 고전을 소개하고 번역하는 데서 벗어나 교육, 연구기관에서 교육, 연구성과물을 보여주게 된다. 실례로 1924-1936년 사이 출판된 연구성과물은 연 25%의 성장을 보이는 반면 기간 내 서구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경제학자들의 수는 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1915년 이후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던 서구유학과 경제학자들의 수가 시간차를 두고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서구 경제학 전공자들의 연구 성과가 전체 중국 내 연구 성과 중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아니었고 전체 경제학자 중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것도 아니었다. 1928-1936년 사이 중국경제학 협회에 참여한 소속 경제학자 514명 중 62명만이 서구권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Trescott, 2007).

그러나 이러한 서구유학파의 전체 경제학계에서 차지하는 비중, 서구유학파들의 연구성과가 당시 전체 연구성과에서 차지하는 비중과는 별도로, 서구유학출신 경제학자들이 소개한 과학적 방법론과 번역 저작물들은 중국 학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고 중국 내 경제학자의 연구 활동에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

이렇게 국내파가 서구경제학의 이론과 방법론을 점차 비판 수용하는 배경 하에서, 1949년 신중국 성립이전 중국경제학계는 리쥘민(李卓敏), 장슈어지에(蔣碩杰), 리우다중(刘大中), 푸산(浦山), 쟡페이강(张培刚)등 세계수준의 경제학자들을 보유하게 된다.

1900년 이후 해외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유학생의 75%는 미국에서

학위를 취득하였다. 당시 중국내에서 서구 경제학을 강의했던 학자들 대부분은 미국 유학 출신이었다. 결과적으로 당시 중국의 대학들은 미국의 경제학 이론과 교재, 교육과정을 신속히 받아들이게 된다. 물론 당시 미국 외에 일본과 독일 유학출신 경제학자들도 대학 내 교수진의 10%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일본과 독일의 연구방법과 교육과정 또한 중국 경제학계에 상당부분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Trescott, 2007).

〈표 1〉 연도별 경제학 출판물과 유학후 귀국한 경제학자의 수

연도	경제학 출판물	유학후 귀국한 경제학자
1910-14	24	15
1915-19	50	57
1920-24	55	157
1925-29	314	318
1930-34	958	540
1935-39	1310	755
1940-44	360	1003
1945-49	362	1169

자료: Trescott, 2007

〈표 2〉 1950년 전까지 연도별 주요대학의 경제학과 교수진

대학	합계	미국 유학자	유럽 유학자	서구권 교수진	서구 유학 학생수
남경*	94	35	16	20	64
북단	91	26	21	0	36
중양	81	31	26	0	54
남개	81	38	14	1	54
연경*	78	33	9	7	60
북경	74	24	16	3	78

*기독교 학교(자료: Trescott, 2007)

중국내 서구경제학의 빠른 도입은 1)과학적 분과학문으로서 경제학의 위치 2)영미권의 활발한 선교활동으로 인한 기독교대학(Christian College, Christian University)의 증가 3)청일 전쟁이후 서구와 일본을 모방한 대학의 대거등장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 1950년 이전의 서구경제학은 자원은 유한하며 따라서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하고 시장 내에서 수입은 한계 생산성과 일치해야 한다는 원리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서구경제학의 입장에서 보면 당시 중국의 시급한 선결과제는 생산성향상과 경제성장을 제고에 있었지만 1920-1950년 사이에 중국내 서구경제학자들은 이를 핵심적 사안이라고 보지 않았다. 이는 서구 경제학의 기본적 가정이 재산권과 계약관계, 화폐의 제도적 안정성, 정부간섭의 축소를 기본으로 삼는데 당시 중국은 그러한 제도적 선결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중국의 서구경제학자들이 이러한 제도적 결핍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데는 뚜렷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 중국의 서구유학파들은 대부분 서구국가들의 정책내용에 대한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고 많은 유학생들이 시장경제의 장점보다 단점을 강조한 제도경제학이 부각된 대학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1929년 미국 대공황이후 기존의 서구경제학 교육현장에서조차 시장경제의 단점이 부각되면서 케인즈 이론과 불완전경쟁 이론은 중국경제학도들의 가장 주요한 관심대상이 되었다(Trescott, 2007).

한편 서구경제학이 빠른 시기에 도입됨에 따라 서구경제학의 성급한 도입과 적용을 우려하는 이들도 늘어나게 되는데 이들은 '서구유학과 경제학자들은 현실세계와 유리된 지적 엘리트가 되었고 연구 성과물은 매우 세부적이고 전문적이어서 일반대중이 이해하기에 난해하고 중국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게 된다(Wang, Yi-Chu, 1996).

그러나 서구경제학을 이론적 기반으로 잡았던 중국경제학자들이 중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며 오히려 당시의 혼란스러웠던 시대적 상황 하에서 연구주제와 방향선정에 있어 매우 조심스러운 경향을 보였다. 실제로 사영기업, 자유시장과 더불어 상인, 지주, 자본가에 대해서도 다소 부정적인 시각을 유지하였다.²⁾

이러한 중국경제학자들의 연구범위와 정책참여의 제한으로 인해 서구경제이론은 당시 중국의 현실경제를 설명하고 당면문제를 해결하지 하는 데 있어서 한계를 보였다. 대표적으로, 중국학계는 중국 경제상황에 기반한 화폐 및 물가와 관련된 이론적 성과(화폐수량이론)를 축적하지 못했고 그 결과 1940년대 극심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론적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이러한 다수의 중국 경제학자들의 조심스러운 접근방법과 달리 1930년대 말 J. L. Buck, J.B. Taylor 등 중국 내 외국경제학자와 일부 서구유학과 출신 경제학자들은 중국현실에 기반한 적극적인 이론적용을 시도했으나 이들의 시도는 1930년대 이후 국공내전과 신중국성립에 이르는 역사적 혼란 속에서 좌초되고 만다(Trescott, 2007).

중국에서 경제학은 근대적 대학, 대학원체제의 설립에 따라 빠르게 보급될 수 있었다. 1895년 이후 천진 북양대학(北洋大学)과 상해 남양(南洋大学)대학이 세워진 이후 1911년 동문관(同文馆)을 흡수한 북경대학(北京大学)과 청화대학(清华大学)이 각각 설립되었다. 경제학은 당시 대학 내에서 전체 10%이상의 학생들이 지원하는 분과학문으로서의 위치를 구축하게 되었고 1940년대에 이르면 대부분의 중국내 대학 경제학과는 2-3명이상의 서구유학과 교수들을 보유하게 된다. 서구 경제학의 보급에 있어서 기독교대학(Christian College, Christian

2) 이러한 집체적 경제메커니즘에 대한 암묵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는 독일과 일본등 후발선진국의 경제발전과정과 다소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University)의 공헌도 상당했다고 볼 수 있다. 1920년대까지 30개의 기독교 고등교육기관이 설립되었고 그중 16개는 4년제 대학형식을 갖추고 있었으며 이들 학교는 선교활동과 더불어 서구의 경제학을 보급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하였다. 1920년대 중반에 이르면 중국은 광범위한 국립 및 사립대학교와 국가연구소를 보유하게 된다. 1920년 북경정부는 경제신식국(经济信息局)을 북경에 설립하였고 1920부터 1928년까지 리우다진은 연구주임을 역임하면서 1923년 중국경제협회를 창설하게 된다. 이 시점 이후 점차 중국정부는 경제학자군을 정책 집행과 경제정책연구의 목적으로 채용하기 시작하기 시작하였고 중국 대학들도 정부의 관리를 교수진으로 초빙하기도 하였다. 당시 낮은 급여수준으로 인해 많은 교수진들은 복수의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연구 및 교육활동을 진행하였다(Trescott, 2007).

〈표 3〉 기독교 대학 학생수와 전체 대학생수의 변화추이

연도	기독교대학 학생 수	기타대학 학생 수	합계	기독교 학생의 비중
1909	667	749	1416	47%
1917	1503	3511	5014	30%
1923	3262	13098	16360	20%
1924	3714	12658	16372	23%
1934	4629	23126	27755	17%

자료: Trescott, 2007

당시 서구유학파들의 주된 관심사는 중국의 제도와 정책발전에 집중되어 있었고 이들 중 다수는 중국은 서구의 제도를 모방함으로써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암묵적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1920-1940년대 영미 경제학계와 마찬가지로 중국경제학계 역시 자유시장제도의 우월성을 맹목적으로 추구하지는 않았으며 정부의 시장개입

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강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1920년 이후 중국의 경제학계 역시 전체 중국사회와 마찬가지로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게 된다. 1920년 리다자오(李大钊) 천치시우(陈启修)등이 베이징대에서 마르크스주의와 관련된 강의를 시작하게 되면서 사회주의는 인문사회과학전반에 큰 반향을 불러 일으킨다.³⁾ 그럼에도 불구하고 1949년 이전까지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들의 연구성과가 전체 경제학자들의 연구 성과중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⁴⁾ 한편, 당시 경제 후진국이었던 중국의 경제상황에 가장 부합하는 이론 분야는 개발경제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학자들은 개발 경제학을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수용하지는 않았다. 중국경제의 개발 및 산업화는 남개 대학에서 팡씨엔팅(方显庭)에 주도적으로 연구되었다. 쟙페이강(张培刚)은 사례연구를 기초로 하버드 대학 박사 논문에서 중국경제개발과 관련한 중요한 연구결과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남개대학(南开大学), 연경대학(燕京大学), 남경대학(南京大学) 내 중요 경제학자들은 농촌개혁을 통한 농업생산성과 사회의 분배공평성 제고에 관한 이론적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노력의 결과 항일전쟁 기간내 농촌조합 건설이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었다(Trescott, (2007).

III. 1978년 이후 서구경제학 도입과 적용

중국은 1978년 이후 개혁개방 이후 점진적으로 시장경제 시스템을

3) 1927년 이전 북경정부와 이후 남경정부는 대학 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발본색원하고자 하였으나 실패하게 된다.

4) 이는 사회적 실천을 중요시 하는 마르크스 경제학의 특성과 함께 당시 국민당의 공산주의 탄압과도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도입하지만 시장경제와 더불어 즉각적인 서구경제학의 도입 및 수용에 나서지는 않았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서구경제학 도입은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먼저 1978-1992년 사이 중국은 구소련 및 동유럽권의 경제학을 수용하면서 서구경제학에는 여전히 부정적이며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다음 1993-1999년 사이 동구권의 해체가 가속화되고 1992년 이후 중국경제체제개혁노선이 사회주의 시장경제임을 명확해 진 이후 서구경제학의 도입속도는 빨라지기 시작했다. 이시기에 이르면 이전의 서구경제학의 주요 저작물 번역 혹은 서구경제학의 정리와 학파소개에 그치지 않고 서구경제학을 이용해서 중국경제개혁중의 구체적 문제를 해석하려는 경향이 점차 뚜렷해지게 된다. 마지막으로 2000년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경제개혁의 가속화속에서 일부 경제학자들은 서구경제학의 근거하여 중국적 이론체계를 발전시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행기 개발도상국의 양적경제성장의 이론적 틀이 되는 경제성장론 및 개발경제학과 양적성장의 토대가 되는 구조변화(제도변화)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신제도주의 경제학이 중국 특유의 개혁경제학 혹은 전형경제학의 중요한 이론적 토대가 되었다. 개혁개방이후 중국의 서구경제학은 서구경제사의 소개, 서구경제학사의 소개, 마셜로 대표되는 신고전학파의 경제학과 케인즈 경제학의 소개로부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서구자본주의의 근원부터 현대자본주의에 이르는 발전과정에 대한 연구, 케인즈 경제학 및 케인즈 경제학 이전의 서방경제학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서구경제학의 근원 모색, 경제학파이론의 역사적 발전과정에 관한 연구가 포함된다. 본고에서는 특히 개혁개방 이후 후발개발도상국에서 출발한 중국적 특성을 1)정부의 강력한 개입 2)도시-농촌, 현대-전통적 산업부문의 격차확대를 통한 불균등한 발전 3) 사회주의 정치체제와 시장경제의 체제의 혼재라는 제도적 특성으로 파악하고

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케인즈 경제학, 경제성장론, 개발경제학, 신제도주의 경제학의 도입과정을 아래와 같이 소개한다.

첫째, 케인즈 경제학에 대한 연구는 80년대 초기부터 활발히 진행되어 브라이언 모건(Brian Morgan)의 'Monetarists and Keynesians : their contribution to monetary theory'가 번역소개된 뒤 후 많은 중국학자들이 케인즈 경제학에 관한 번역 및 연구성과를 내놓기 시작했다. 이후 중국 경제학계의 케인즈 경제학에 대한 관심은 이후 신케인즈 경제학에 대한 연구로 이어져 1997년 평진화(冯金华)의 '新凯恩斯主义经济学' 이후 다수의 신케인즈주의 경제학과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어 왔음을 볼 수 있다.⁵⁾

둘째, 경제성장론 분야에서는 1983년 도마(Domar E.D.)의 경제성장 이론이 소개된 이후 솔로(Solow R.M.), 쿠즈네츠(Kuznets Simon), 배로우(Barrow R.J.), 로스토우(Rostow W.W.), 넬슨(Nelson R.R.), 존스(Jones, C. I.), 먼델(Mundell R.A.), 헬프만(Helpman E.), 웨일(Weil D.N.) 등의 주요 저작물이 최근까지 번역되고 있으며 중국 학계에서도 경제성장론을 적극 수용하여 주용(朱勇), 슈위안(舒元), 공리유당(龚六堂), 쑤다페이(左大培) 등은 서구경제학의 성장이론을 이용하여 중국적 특성을 반영한 이론적 성과물을 내놓고 있다. 서구경제학의 관점에서 볼 때 중국 경제성장의 문제는 1)경기의 파동적 문제(불안정성)와 2) 경제성장구조와 산업구조의 불합리성으로 인한 지속적인 경제 발전의 예측하기 힘들다는 점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는 저부가가가치 제조업 중심의 투자와 수출중심의 경제발전에 기인하며 결과적으로 3차 산업발전과 국민소득 증가를 저해한다. 게다가 이러한 경제성장은 환경을 파괴하고 자원을 과도하게 소모하고 비용증가로 통화팽창을

5) 白英秀·任保平, 『新中国经济学60年(1949-2009)』(高等教育出版社, 2009), pp. 90-122.

초래하고 경제안정성을 해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실행가능하고 적합한 경제성장 전략을 추구함으로써 국내소비동력을 제고하고 소비를 경제성장의 출발점으로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중국 내에서도 제기되는데 이는 외부적으로 전세계적으로 경제성장과 생태환경의 관계,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의 문제의 부각과도 관련이 있다. 이러한 내외적 상황을 반영하여 서구경제성장이론의 틀 속에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관한 연구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셋째, 개발경제학은 경제성장모델, 경제성장의 지표선정, 경제성장과 생태환경과의 관계 등에 관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함으로써 중국 경제학자들이 개혁 개방초기부터 주목했던 이론이다. 특히 중국 특유의 구조적 이원성 문제,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지역경제발전의 차이의 문제, 대외무역, 외국자원(자본)의 선택문제, 재정정책과 화폐정책 문제, 정부개입과 시장조절간의 관계에 이르기 까지 경제의 전반에 걸친 문제를 다각적인 개발경제학의 시각으로 설명하려는 경향이 1990년대 이후 더욱 뚜렷해졌다고 볼 수 있다.⁶⁾ 이시기의 중요한 개발경제학 저작물로는 쟁페이강(张培刚)의 ‘发展经济学与中国经济发展’(华中科技大学出版社1996), 허리엔청(何炼成)의‘中国发展经济学’(高等教育出版社 1999), 홍인씽(洪银兴)의 ‘发展经济学与中国的经济发展’(高等教育出版社, 2000)등이 있다. 중국내 개발경제학은 무한대학(武汉大学)을 중심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여 북경대학, 화중과기대학, 남개대학, 남경대학등에서도 중점적으로 연구되고 있다.⁷⁾ 개발경제학은 농업을

6) Gillis and Perkins의 ‘Economics of Development’가 1998년 소개된 이후 McKinnon(Money and capital in economic development), Meier(Leading issues in economic development), Arndt(Economic development: the history of an idea), Lewis(The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Hoff and Stiglitz(Modern Economic Theory and Development)등 개발경제학의 주요저작들이 번역되기 시작했다.

기반으로 한 공업화, 농촌과잉노동력의 이동과 도시화의 진전, 도-농간의 이원적인 특수상황 즉 도-농간의 이원적 경제구조 (Dual Economy, 二元经济)를 주된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다. 먼저 이원적 경제구조는 개발도상국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현상이며 많은 개발경제학자들은 이원경제구조의 개선은 공업화로부터 시작된다고 보고 있다. 중국 역시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이원적 경제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히 중국은 전통적 산업부문과 현대적 부문간의 이원적 경제구조위에 계획경제와 시장경제라는 이중적 이원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⁸⁾ 농촌 과잉 노동력의 도시로의 이동제한은 또 다른 중국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안추안진(安川金)은 도시의 공업구조를 기반으로 하여 농촌의 공업발전을 확대하여 이원적 공업체계를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통해 농촌 노동력이 거점도시로 집중되는 것만이 아니라 도시주위의 농촌으로 공업이 이전될 수 있다고 보았다. 같은 맥락에서 가오판(高帆) 역시 이원경제의 변화는 공업화이며, 공업화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업의 발전과 도시화의 제고, 분업구조의 변화 및 분업수준의 제고는 전체 경제체제하에서의 거래비용을 떨어뜨리고 효율성을 높인다고 보았다. 반면 홍인썩등은 중국의 농업은 아직 루이스(Lewis, A.)가 지적했던 과잉노동력이 존재하지만 중국의 이원경제는 공업과 농업의 격차확대 즉 일방의 희생과 약화를 통해서 다른 일방의 강화를 모색해서는 안된다고 보았다. 홍인썩은 낙후된 중국농업의 개선대책은 루이스 및 쉘츠(Shultz)의 이론을 동시에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농업의 과잉노동력을 이동시

7) 화중과기대의 경우 쌍폐이강의 영향으로 90년대 후반 중국내 개발경제학을 선도했으며 남개대학의 경우 홍인썩의 중국전형적(中国转型的)개발경제학을 주로 연구하였다.

8) 이를 쌍층적 이원화 구조라고 부른다.

켜 농업생산성을 제고하고 노동력자원을 활용해야 함과 동시에 농업 자본 및 기술 투입을 증가시켜 전통적 농업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쟁페이깡 역시 공업화는 생산함수의 연속적 발전변화과정이라고 정의하고 공업화는 기계화 현대화 뿐만 아니라 농업의 기계화와 현대화도 포함한다고 파악하였다. 그는 이를 통해 도시위주의 일방적인 공업화의 경향을 피하고 농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보았다. 공업화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도시화는 농촌노동력의 도시이동과 과잉노동력의 이원적 구조의 해결을 주요과제로 삼는다. 황주휘(黃祖輝)등은 도시화를 위해서는 비농업의 도시화뿐 아니라 농민의 시민화 발전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홍인썩은 경제적 자원을 집중하여 규모의 경제를 통해 도시화를 추진해야 하지만 도시화가 단순히 인구이동과 도시의 거대화에 머물러서는 안되며 도시의 과밀집중으로 인한 도시의 병리현상을 해결하기위해서 도시간, 도농간 공간적 네트워크를 조성하여 거점도시로부터 도-농간 일체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주티엔쩐(朱鐵臻)은 중국의 도시화는 중국의 인구밀집적 특성, 공업화, 정보발전요구, 서비스업 발전요구, 국토이용률, 경제의 글로벌화에 대한 요구에서 출발 중국적 특성을 반영하여야 하며 이는 사회주의적 공평성과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넷째, 신제도경제학은 1988년 코즈(Coase)의 'The nature of Firm'이 번역된 이후 중국에서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했으며 현재까지 이론계 및 경제정책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⁹⁾ 신제도경제학이 빠른 시간 내에 중국 경제학계의 큰 주목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신고전학과 경제학이 시장거래의 전제조건인 시장 조직과 제도를

9) Coase에 이어 North와 Schotter등의 신제도경제이론도 1990년대 초반부터 번역 소개되기 시작했다.

이미 정해진 것으로 파악하는 반면 신제도경제학은 제도변수를 중요한 경제분석의 중요한 요소로 파악함으로써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 체제로 이행하는 중국 경제의 제도변화의 필요성과 개혁과정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때문이다. 신제도경제학은 제도결핍과 제도공급지체는 사회경제발전을 저해하며 개별국가간 요소의 생산성 차이는 개별국가의 제도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신제도경제학의 관점에서 볼 때 중국의 과제는 공식제도와 비공식제도를 포함한 시장경제의 제도 구축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중국의 경제발전은 시장경제제도의 결핍 속에서 정부주도로 이루어진 공급주도형의 경제발전모델로서 서구의 시장주도의 수요주도형 발전모델과는 차이가 있으나 중국경제가 발전할 수록 경제제도는 공급주도형에서 중간과도기를 거쳐 수요주도형으로 변화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중국은 점진적 경제개발모델을 선택함으로써 신구제도가 공존하는 쌍궤제(雙軌制)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정경유착, 소득분배불균형, 시장질서혼란등의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이러한 이행기의 문제점에 대해서 신제도경제학의 재산권이론, 거래비용이론, 제도개혁과 관련된 제이론들은 중요한 이론적 정책적 함의를 지니고 있다. 중국경제학자의 신제도주의 경제학에 대한 연구는 크게 제도변화에 관한 연구, 재산권과 거래비용에 관한 연구, 기업의 본질과 개혁에 관한 연구, 공공선택에 관한 연구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제도변화에 관한 연구에서, 린이푸(林毅夫)는 제도변화를 강제적 제도변화와 유도적 제도변화의 차이를 구분하고, 신제도경제학중 국가와 의식형태에 관한 연구를 수용해서 제도개혁에서 이 양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반면 황샤오안(黃少安)등은 린이푸의 구분은 제도개혁의 주체가 개인에서 정부로 바뀐 것일뿐 사실상 동일한 개념의 반복이며 정부는 전체적인 비용-수익분석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내리

게 된다고 파악하였다.¹⁰⁾ 반면 왕딩딩(王丁丁)은 제도혁신이라는 관점에서 사회계약을 제도라는 개념으로 세분화하여 노쓰(North)의 제도변화와 슘페터의 혁신이론을 결합하여 제도변화를 분석하고 비정규문화습관과 문화요인을 관찰하여 체제권력과 체제가 생산해 낸 이윤에 대한 권리가 다른 사회단체에 귀속된다면 두 개의 사회단체의 협조가 제도혁신의 전제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양샤오카이(杨小凱)등은 분업에 기초하여 제도변혁이론을 분석하면서 거래효율이 분업수준을 결정하기 때문에 분업수준에 따라 조직구조도 달라지며 비용이 일정한 수준을 초과할 경우 분업수준은 변화하여 제도도 변화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둘째, 재산권과 거래비용에 관한 연구에서 황샤오안등은 인류의 재산권은 무산권에서 유산권으로의 변화하였지만 그 변화가 재산권객체의 증가, 재산권의 증가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파악하였다. 반면 왕딩딩은 거래비용의 성립은 게임균형 상태이며 거래비용 역시 기회비용이라는 정의에 의해 규정되는데 제도선택의 여지가 없는 일반 균형하에서는 기회비용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양루이룽(杨瑞龙)은 거래비용이론과 재산권이론의 논리적 내재성을 재해석하여, 중국현실에 맞게 불완전시장, 기회주의 행위, 기회주의와 거래비용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셋째, 기업의 본질과 기업이론에 관한 연구에서 장웨이닝(张维迎)은 기업의 출현이유에서 출발, 자산잉여권과 통제권의 분배문제, 위탁-대리인 간 효율적인 계약형태를 중요한 탐구대상으로 삼았다. 이에 반해 양루이룽, 조우이에안(周业安)등은 재산권과 물권의 차이에 주목하고, 기업계약은 생산요소 재산권주체간의 계약이라고 파악하면서, 현대기

10) 그에 따르면 강제적 제도변화는 타인을 강제하는 것뿐 아니라 자신을 강제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업의 지배구조의 다양화를 현대적 재산권의 다양화의 결과로 이해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계약은 재산권주체의 평등성과 독립성에서 출발하는데 인력자원과 그 소유자는 분리할 수 없는데 기업의 자산잉여는 기업의 전용성 자원에 의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점유적 인력자본이 기업소유권을 획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집체상품은 단체성원 공통으로 창조한 것이지만 현실세계에서 기업소유권은 인력자본과 비인력자본의 협상의 결과라는 것이 그들의 결론이다. 조우치런(周其仁) 역시 인력자본의 개인적 특성에 주목하고 인력자본과 비인력자본의 결합으로 생산활동이 이루어 질 경우 특수한 인력자원에 대한 격려제도가 포함되어야 하며 노동뿐 아니라 자본과 기업가 재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치엔잉이(钱颖一)는 사유재산화 시장경제조건하에서 기업조직과 관련된 이론을 내놓았는데 기업의 본질과 경계, 기업내부의 경쟁과 협력관계, 기업의 자본구조, 기업의 소유권과 통제권 시장이 관리자의 행동제약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보았다.

한편 위에서 상술한 신제도주의 경제학의 현실적용과 관련하여 쥐다페이는 충격요법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가격이 시장자유화에 결정되면 공급이 단기내에서 증가할 수 없으므로 물가수준이 급상승하고 정부당국은 통화억제정책을 쓸 수 밖에 없다고 보았다. 쟁쥘(张军)은 구소련및 동구권의 빅뱅식의 경제개혁과 비교해 볼 때 쌍궤제(双轨制)는 중국의 경제성장에 큰 역할을 했다고 보고 가격에서 쌍궤제는 시장경쟁기제를 도입한 것이며 경제성장의 기본동력중 하나였다고 평가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린이푸는 중국은 자국의 처지에 부합하는 비교유위적 전략을 통해서 경제성장을 도모함으로써 단시간에 내 높은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고 평가하면서 점진적 변혁전략은 한계적 증량적 개혁으로 나타나며 개혁이 기존의 기득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경우 개혁의 반발은 줄어들 것이며 개혁의 성공가능성은

더 커진다고 보았다. 농업 및 농촌 문제에서 린이푸는 기존의 높은 감독비용으로 인한 정보의 비대칭성이 개별농민이 도덕적 해이에 빠지게 하고 결과적으로 농업생산량이 급격히 하락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농업생산위기를 유발했다고 파악하기도 하였다. 기업활동의 신제도주의경제학적 해석에 있어서 쟁웨이닝은 사유재산제도가 유효한 동기부여이며 관리인의 선택 효율성을 높인다고 전제 한 후 국유기업의 소유권 개혁은 부실국유기업문제 해결의 선결조건이라고 보고, 국유기업의 민영화를 통하여 국유기업의 근본 부실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맥락에서 쑤우치런은 시장화개혁이 시작되지 않은 공유제 하에서는 공유제기업이 개인의 생산성자원에 대한 점유권을 부정하게 되는데 이는 일종의 비시장화에 대한 합의라고 보면서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본을 경제활동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유제 기업은 국가의 동기부여시스템을 통해서 시장거래와 동기부여문제를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 역시 지금까지 국유기업의 개혁이 성공적이지 못했던 이유를 불분명한 소유권에서 찾고 있으며 현대적 기업제도를 확립하기 위해서 국유재산의 소유권제도의 혁신이 필요하며 소유권 제도의 혁신은 재산권의 명확화, 재산권구조의 합리화와 유동성제고를 통해 국유기업이 현대적 기업제도의 특성을 갖추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았다. 반면 양뤼룽은 주식소유제 개혁은 기업의 분류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국유기업의 성질이 강한 기업은 영리적 기업법인의 제도에 따라 소유권제도가 바뀌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쟁쑤은 기업의 자유퇴출이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면서, 계획경제시스템 하에서 국유기업은 정부의 이해를 반영하고 고용효과가 크고, 기타 사회적 퇴출비용이 높으며 다른 기업간 계약관계로 인해 자유롭게 퇴출할 수 없으므로 국유기업의 효율성은 더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보았다.

다수의 경제학자들이 경제체제 개혁의 차원에서 신제도주의경제학을 탐구한 반면 일군의 학자들은 전통적인 사회주의 관점을 유지하면서 마르크스 경제학과 신제도 경제학을 비교연구하기도 하였다. 뤄시엔샹(卢现祥)은 제도분석을 중요시하고 제도를 사회주의발전의 내생변수로 설명하는 마르크스경제학이 신제도주의경제학에 끼친 영향에 주목하면서 마르크스와 소유제이론과 노쓰(North)의 재산권이론, 마르크스와 노쓰의 국가이론, 의식형태이론을 비교하면서 마르크스 이론이 아직 강한 설명력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한편 양청창(杨成长)등은 신제도주의경제학은 신고전경제학의 부활로 마르크스 경제학은 고전경제학의 집대성으로 파악하면서 마르크스 경제학과 신제도경제학의 차이는 전자는 제도경제학의 본질파악을 이론적 목적으로 삼고 있고 후자는 시장경제운행에 기여하는 것을 그 이론적 목적으로 삼고 있다고 구분하였다. 위진푸(于金夫)역시 마르크스 경제학의 제도분석 방법은 본질적으로 제도경제학 이론과 동일하고 신제도경제학의 분석방법은 기본적으로 서구의 신고전학파의 전통을 이어받지만, 연구대상과 역사 분석방법등 구체적 분석방법은 마르크스 경제학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았다. 한편 기업 및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우산린(伍山林)은 기업의 성격을 논할 때 신제도경제학은 거래비용을 강조하는 반면 마르크스 경제학은 협조적 관계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였고 동안루이(董全瑞)는 마르크스 경제학과 신제도경제학의 차이는 기업이 생산한 잉여의 근원과 그 소유권에 대한 인식의 차이이며 이는 두 이론의 노동관계, 효율과 공평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출발한다고 파악하였다.

IV. 개혁경제학의 성립과 발전

중국에서 개혁경제학(改革经济学)은 계획경제의 핵심적 요소를 유지하면서 개혁과 시장시스템의 도입을 통하여 기존의 경제시스템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경제학적 체계를 의미한다.¹¹⁾ 1992년 이후 사회주의 시장경제건설이라는 경제체제의 개혁방향이 확고해지면서 서구경제학 중 신제도경제학과 개발경제학이 가장 활발히 검토 도입되었지만 경제개혁에 의미가 있는 것이라면 신고전경제학(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비교경제학, 진화경제학, 공공선택이론등 서구경제학의 이론 전반이 개혁경제학이라는 이름하에 도입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처음에는 개혁경제학이라는 용어 대신 구소련및 동구권의 영향을 받아 이행기경제학(과도경제학过渡经济学, Transition Economics)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으나 최근 신체제가 구체제를 점진적으로 대체하면서도 구체제의 핵심적인 요소는 폐기되지 않는 중국의 특성을 반영하여 전궤경제학(转轨经济学)이라는 용어도 같이 사용됨을 볼 수가 있다(王曙光, 2009). 한편 전형경제학은 서구경제학과 마르크스 경제학을 동시에 포함하면서 이론적 혹은 실증적인 성격이 강한 반면 개혁경제학은 현대서구경제학을 주요이론배경으로 하여 체제개혁과 정책실행과정에 직접적인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양자를 구분하여 사용하기도 하지만 중국의 경제개혁은 아직 중국내에서 유효한 정치 및 경제이념인 마르크스주의에 의해 적정선에서 조절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양자의 차별성은 그렇게 뚜렷하다고 보기 힘들다.¹²⁾

개혁경제학은 시장화개혁과정 중 제도확립과 정책수립, 경제 성장

11) 개혁경제학은 중국내에서도 이행기경제학(과도경제학) 전형경제학과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12) 白英秀·任保平(2009), pp. 255-283.

의 이익분배, 농촌의 과잉노동력의 이동, 도시화등 경제 개혁전반에 관한 문제를 다룬다고 할 수 있다. 중국내에서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로 개혁을 1)가격제도개혁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의 미시적 작동기제 도입 2)소유제개혁과 비공유제경제의 발전이라는 2단계로 구분하고 있는데 최근 소유제개혁이 합법성을 획득한 이후 공유경제의 한계와 퇴출방법에 관한 연구(외부적 특성)에까지 그 연구 영역이 확대됨을 볼 수 있다. 개혁경제학의 구체적 분파와 대표적 인물은 아래와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협조개혁파(协调改革派): 우징롄(吴敬琏)으로 대표되는 협조개혁파는 1986년 이후 러시아 및 동구권의 경제학적 성과와 서구경제학의 이론을 동시에 받아들여 중국의 경제개혁에 맞는 이론적 체계를 수립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방권양리(放权让利)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시장메커니즘을 부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미시적 입장과 경기과열과 통화팽창문제를 적정선에서 통제해야 한다는 거시적 관점으로 요약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중국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근본문제는 행정명령과 지령에 근거한 자원분배 이로 인해 저하된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放权让利나 동기강화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시장경제의 메커니즘의 도입이 필요하며 아울러 독립및 책임경영과 경쟁적 시장시스템이 그 주된 내용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다(吴敬琏, 2004).

소유제개혁파(所有制改革派): 리이닝(厉以宁)으로 대표되는 소유제개혁파는 기업체제개혁파로도 불리는데 중국경제의 불균형상태가 시장은 불완전성, 가격신호의 왜곡, 자원공급의 제약으로 이어지고 최종적으로 사회총수요가 사회총공급을 초과하는 현상이 지속된다고 분석하였다. 이들은 불완전시장 조건(불균형상태)하에서의 가격의 조정기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격개혁 위주의 경제개혁은 실

패할 수 밖에 없고 반드시 소유제 개혁이 수반되어야 하며 소유제 개혁은 주식화, 주식화를 통한 기업구조제도의 개선, 그리고 (사회주의적) 기업법인의 설립을 포괄해야하며 기업체제의 개혁이 시장경제의 불안정성, 상품가격구조의 왜곡, 기업의 독립적경제지위의 부재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파악하였다.

관송학파(宽松学派): 리유구위광(刘国光)으로 대표되는 관송학파는 1980년대 초부터 거시적 경제관리를 강조하며 개혁발전에 적합한 느슨한(宽松)한 경제환경을 만들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 근거로 리유구위광 소비자시장설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는 1)신경제체제는 시장시스템이 중요한 기능을 해야 하는데 이는 시장시스템의 총공급이 총수요보다 클 때 가능하다는 것과 2) 정부는 개혁과정에서 과도기적 사회마찰에 대비하기 위해서 충분한 물자의 비축을 통해 경제이익조정기능에 개입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거시경제개혁우선학과(宏观经济学优先派): 왕궈(王琢)로 대표되는 거시경제개혁우선파는 거시경제의 개혁이 경제 개혁의 핵심이라고 파악하고 중국이 거시적으로 어떤 성장 전략을 선택해야 하며 무엇이 개혁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하였다. 이들은 기업소유제 개혁 및 가격개혁과 같은 미시적 개혁의 한계성을 지적하면서 기업개혁체제는 총수요팽창 인플레이션과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점진적인 가격개혁 역시 실현성이 떨어지며 가격보상과 통화팽창과 같은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가격제도의 개혁은 최종적 목표로 설정되어야 하며 이는 소유제개혁을 동반한 거시경제의 체제의 개혁이 일정한 궤도에 오를때 가능하다.

경영권주도개혁파(经营权主导改革派): 마홍, 양페이신으로 대표되는 경영권주도개혁파는 1980년대부터 개혁경제학의 주류로 분류할 수 있으며 소유권과 경영권 분리에 근거한 국유기업의 개혁을 강조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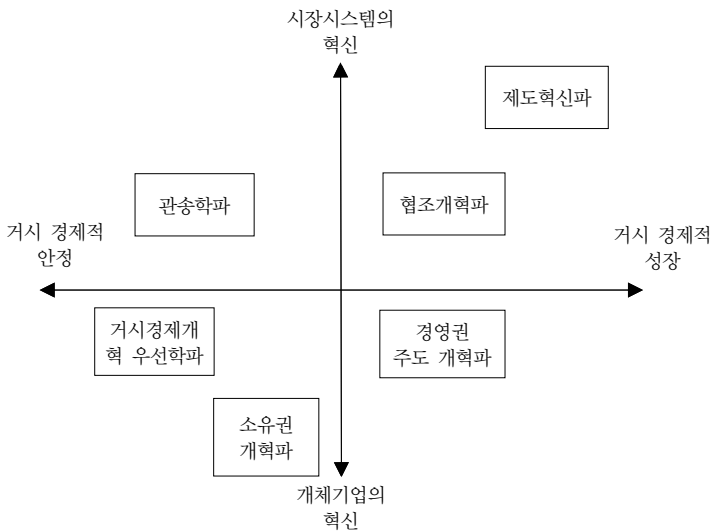
서도 국유기업은全民所有制 성격이 강하므로 국유기업의 소유권이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경영권을 아래로 이동시키고 경영권을 정부에서 기업으로 이동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淡化所有权, 强化经营权). 이들은 사회주의적 관점을 비교적 뚜렷히 유지하면서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경영체제는 다양한 형식의 책임경영(승포경영책임제, 承包经营责任制)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재산권개혁파(产权改革派): 1987년 후 지샤오밍, 허웨이샤양, 티엔위안, 다이구어칭에 의해 주도된 재산권개혁파는 기업은 그 재산권이 명확해질 때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경계를 가지게 되어 정치-경제가 분리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제도혁신파(制度革新派) 린이푸, 판강, 성홍, 쟁슈광으로 대표되는 제도혁신파는 1980년대 말부터 이론적 실증성 성과를 내놓고 있는데 이들 대부분은 전통경제학의 이론과 방법론위에서 신제도주의경제학을 접목시켜 중국경제현상을 해석하고 개혁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들의 주장은 경제개혁을 위해서는 경제학의 분석시야를 확장해야 하며 제도혁신의 관점에서 경제개혁을 연구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들은 개혁은 제도선택의 문제이며 제도는 사회적 수익이 사회적 비용보다 커야 하며 잠재적 거래 비용을 최소화 하는 선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들은 재산권운용, 거래비용, 경제조직, 위탁-대리인, 불확실성, 지대추구행위등 중국 경제현실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전통적 경제학이 해결하지 못했던 중국의 경제현상을 설명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상에서 소개한 중국 내 개혁경제학파들의 구분은 이론적 구분이라기 보다는 경제정책의 우선순위에 의거한 구분에 가깝다. 실제로 재산권개혁파와 소유제개혁파의 주장은 매우 흡사하다. 아래에서는 개별 경제학파를 개혁정책의 우선순위라는 측면에서 개체(기업)와 시스템(가격제도) 개혁 및 거시경제의 안정성 및 성장성이라는 두 개의

축으로 놓고 분류해 보았다(周冰, 2009).¹³⁾

아래의 그림에서 확인 할 수 있듯 개혁경제학은 안정과 성장, 개체와 제도의 개혁이라는 경제목표를 추구했지만 개방 이후 가격제도의 개혁과 거시경제적 성장의 이론적 뒷받침은 제도혁신파와 협조개혁파에 의해 주도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1〉 중국 개혁경제학의 이론적 지형



자료: 저자

위의 그림에서 확인 할 수 있듯 개혁경제학은 안정과 성장, 개체와 제도의 개혁이라는 경제목표를 추구했지만 개방 이후 가격제도의 개혁과 거시경제적 성장의 이론적 뒷받침은 제도혁신파와 협조개혁파에 의해 주도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13) 개혁경제학의 이론적 성과물과 관련된 연구는 白英秀·任保平(2009), pp. 275-283.

V. 맺음말

두 개방기에 걸친 서구경제학의 도입은 대외개방이라는 조건하에서 부국강병(富国强兵), 부국유민(富国裕民)이라는 유사한 배경과 목적성을 띠고 있으나 과정과 효과는 달랐다. 이는 양 시기의 시대적 특성에 기인한다. 1850년 아편전쟁 이후 부터 신중국성립 이전까지는 역사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서구경제학의 현실적 적용기회가 없었지만 개혁개방이후 서구경제학은 시장경제체제의 보급과 함께 체제 안에서 빠르게 흡수되고 중국적 적용과정을 거치게 된다. 첫 번째 전환기의 경우 서구경제학(개발경제학)의 적용이 항일전쟁과정의 협동조합 설립으로 이어진 것을 제외하면 뚜렷한 현실적 성과는 찾기 힘들다. 두 번째 전환기의 경우 서구경제학은 중국적 맥락에서 개혁경제학의 이론적 토대가 되었으며 다양한 이론들의 현실적 적용기회가 발생하였다. 개혁개방 이후부터 현재까지 중국 경제정책의 일차적 목표는 시장개혁을 통한 경제성장이었다. 따라서 제도혁신파와 협조개혁파의 이론이 정책에 많이 적용되었다. 향후 중국이 중속에서 안정적 성장기조로 바뀌고 개혁의 초점이 체제개혁에서 개체개혁으로 전환된다면 소유권개혁파와 거시경제 우선학파의 이론이 현실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예상해 볼 수 있다.

개혁개방 이후 유학생 수의 증가와 각급 대학교, 대학원의 교육의 보급으로 경제학이 대중화되면서 서구경제학의 영향력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이를 두고 중국 학계 내에서도 서구경제학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또 하나의 교조(敎條)라고 우려하는 의견이 존재한다. 그러나 시장개혁이 점차 가속화 됨에 따라 서구경제학의 도입과 적용이 감소하지는 않을 것이며 개혁개방의 심화로 전문적이며 실증적인 경제학 세부분야에 대한 수요는 오히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중국 경제정책의 변화와 함께 중국내 서구 경제학의 대중화와 전문적이고 세분화된 경제학 분과에 대한 수요증가를 고려하여 중국 경제학의 연구동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林毅夫·蔡昉·李周, “中国的奇迹;发展战略与经济改革”, 『上海三联书店和上海』(上海: 人民出版社, 1994).
- 白英秀·任保平, 『新中国经济学60年(1949-2009)』(北京: 高等教育出版社, 2009).
- 吴易风, 『现代西方经济学与中国经济发展』(北京: 中国经济出版社, 2009).
- 张卓元, 『中国经济学60年(1949-2009)』(北京: 中国社会科学出版社, 2009).
- 王曙光, “转型经济学的框架变迁与中国范式的全球价值”, 『财经研究』, 第25期(2009).
- 周冰, “转型经济学在中国的兴起和科学定位”, 『社会科学战线』, 第7期(2009).
- 刘国光, “关于社会主义市场经济的几个问题”, 『经济研究』, 第10期(1992).
- 吴敬琏, “经济学家, 经济学与中国改革”, 『经济研究』, 第2期(2004).
- 张曙光, “中国经济学的百年回顾和反思”, 『天则年鉴』(2007).
- Trescott, Paul B. Jingji Xue. *The history of the introduction of western economic ideas into China, 1850-1950*(Hong Kong: Chinese University Press, 2007).
- Wang, Y.C. “The influence of Yen Fu and Liang Ch'i-ch'ao on the San Min Chul”, *Pacific Historical Review*, May pp. 163-184(1996).

A study on introduction and application of western economics in China

Min Sung Ki(Daegu University)

Abstract

Given that China had two opening eras in history, the period where China had been transformed to modern nation from 1850 to 1949 and the period where China has been under the reform and opening policy since 1980, western economics has been studied applied in policy in Chinese context. This study is aimed at analyzing and understanding historic process of studying and applying western economics in China. This study finds that in the early open era 1850-1949, western economics was not applied in economic policy extensively, due to the historic turmoils such as Civil war and war against Japan, even though various western economics was introduced and studied, while development economics has partly contributed in setting rural cooperatives. Mean while, in the current open-era, western economics has been widely accepted and studied since China is expanding and upgrading the scope and process of market reform. Seemingly, China has formed its own 'Reform Economics', whose theoretical base is mainly from western economics. Considering China is still on its path to economic growth and market reform, the schools of institution reform and cooperative reform have been influential in economic policy. Also, it can be forecasted that the schools of ownership reform and macro economic reform would be influential in economic policy in the future where economic stability and reform on individual economic entity will be important.

Key words

Western Economics, China Context, Reform Economics, Open-eras